

고흥군, 대형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주)와 상생 협약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에 상호 협력키로 “사회적기업·6차산업 인증 상품판매에 청신호 켜져”

고흥군은 19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11번가(주)와 ‘고흥물 농수산물 온라인판매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농가의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를 지원하는 ‘고흥물’이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11번가와 손잡고 온라인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식은 조대정 고흥 부군수를 비롯해 조광일 영업기획사무장 등 관계 임직원들이 참여해 고흥군 농수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대정 부군수는 “고흥군은 양질의 우수한

농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온라인 판로 개척이 쉽지 않다.”라며, “11번가와 연계해 고흥물 만의 특성 있는 마케팅을 통해 우리 농수산물의 온라인판매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1번가 조광일 영업기획사무장은 “전국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유자를 비롯한 김, 양파 등 우수한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고흥은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며, “고흥물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반드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11번가와 협약을 통해 관내 사회적기업·6차산업 인증 상품 판매에 청신호 켜졌다.”라며, “이번 협약이 고흥 농수산물 스마트 유통 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지역 내 전통시장 11개 빈집포 새 주인 찾았다

20대~60대 청년·경력단절 주부 등 다양

광양시는 지역 내 전통시장 11개 빈집포의 새 주인을 찾았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광양5일시장 등 지역 내 4개 전통시장 빈집포의 입점자를 모집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20명을 대상으로 17일 면접심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1개 점포의 새 주인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공설시장 사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빈집포 모집업종 및 점포수, 입점자 신청자격, 면접위원 선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지난 15일까지 전통시장 입점 희망자를 모집했다.

입점 희망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청년, 경력단절 주부, 노점상인 등 다양했으며, 중마시장 횡집의 경우 지원자 평균 연령이 27세로 젊은 층의 인기가 많았다. 전통시장 특성상 일반 상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소자본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1인 영업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면접심사에는 ▲광양5일시장 3개소(분식 1, 닭튀김 3, 내일아트 1) ▲중마시장 3개소(횡집 1, 분식 1, 분식 2) ▲옥곡5일시장 3개소(정육점 1, 즉석식품 3, 수산물 4) ▲광영상시장 3개소(횡집 1, 반찬가게 1, 분식 1) 등 12개 점포에 지원자 20명이 참여했다.

면접심사는 지원자의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업종별 경력 및 지원동기, 판매 전략, 전통시장 적합 여부 등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시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광양시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허정량 투자경제과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입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전통시장은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장에 필요한 업종이 선정된 만큼 새로운 입점자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준공을 앞둔 광양매일시장 빈집포 12개소에 대해 추후 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입점자를 결정하고 분시장 입점 후 2월 중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시민과 함께 트렌드 반영한 콘텐츠 발굴

27일부터 2024년 쇼츠크리에이터 및 소셜미디어기자단 모집

순천시는 오는 27일까지 2024년 순천시 쇼츠크리에이터와 소셜미디어기자단(이하 '시민 크리에이터')을 모집한다.

시민 크리에이터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시정소식, 축제, 관광지·맛집, K-디즈니 순천 등 자유로운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의 눈으로 보는 다양한 순천의 모습을 시 공식 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2024년은 정월박람회 이후 AI와 함께 미래로 가는 K-디즈니 순천을 홍보해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크리에이터의 홍보 활동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쇼츠크리에이터의 지원 신청은 네이버 폼(<https://naver.me/G3XFnPzZ>)에서 가능하며, 소셜미디어기자단은 홍보실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시 시각각 변화하는 SNS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콘텐츠로 순천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해 나가겠다”며 “역량 있는 시민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선발인원 및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 공식 블로그를 확인하거나 홍보실 뉴미디어홍보팀(☎ 061-749-57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현안사업 연계 ‘선진지 벤치마킹’ 청도·울산·부산 방문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보성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2024년 지역 현안 사업 및 주요 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벤치마킹)에 나섰다

보성군은 청도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해 보성군 특산품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보성 열선루 중건 사업, 도시 재생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견학은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농축산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 직원 및 읍면장 30여 명이 함께했다.

첫째 날은 청도 한재 미나리 특화 재배단지 현장과 페터널을 활용한 청도 와인터널을 방문해 지역 농특산품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청도읍성을 거닐며 보성 열선루 중건 사업에 접목할 만한 사례를 논의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중구의 도시재생 사업장을 견학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성군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점포방안과 도입 가능성 등을 연구했다.

둘째 날은 부산광역시 삼덕동상(회장 문장섭)과 지역혁신 선도기업인 세진벤처공업(대표 방영학)을 방문해 지역 내 공업단지 활성화 방안, 노후 산업 개발, 신산업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보성군은 이번 선진지 견학 결과를 토대로 점목 가능한 정책을 도입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선진지 견학(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 개발에 대한 견해를 나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선진지 우수사례를 적극 견학(벤치마킹)해 보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여수시 “방치된 빈 집, 지원금 받아 철거하세요”

빈집 40동에 총 1억2천만원 투입...철거비 최대 300만원 지원

여수시가 도심지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도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빈집 40동에 총 1억2천만 원을 투입, 소유자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 집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대상에 대해 장기간 방치돼 주변 지역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우선순위에 둔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웃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집주인을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빈집 53동에 대해 철거비를 지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품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